
유형 5.



선지의 내용을 맞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때 가장 편한 경우는 지문에 선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경우이다.

지문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선지는 무조건 맞는 선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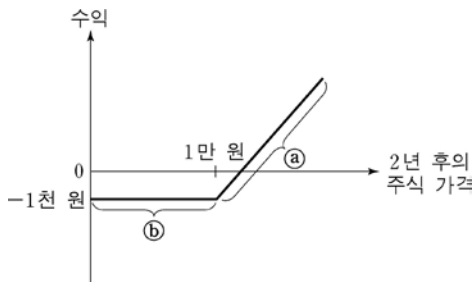
이 때, 평가원은 내용적으로는 일치하더라도 지문에 있는 표현을 조금 바꿔서 선지를 만들기도 한다. 지문과 선지가 표현하는 텍스트가 달라도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면 맞는 선지라고 판단해주자. 예를 들어 '방언은 바뀐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고 '토속어는 변화한다'라는 말이 선지에 있다면 둘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유형 5. 일치 | example 1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① ⓐ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준다



위의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06 수능 [52-55]번 지문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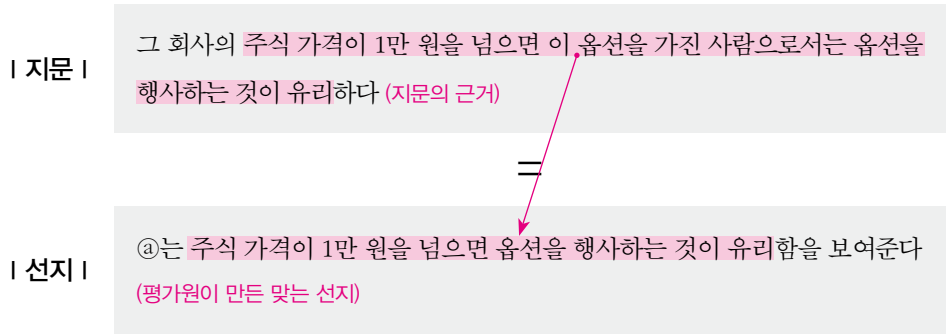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54.①번 선지와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이 내용 뿐만 아니라 텍스트까지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응되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맞는 선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위 내용만 찾았다면 적어도 54.①번 선지에 대해 틀리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평가원도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유형 5. 일치 | example 1

평가원의 54. ①번 선지에 대한 해설

1만 원이 넘지만 1만 1천 원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도 옵션을 구입한 가격 1천 원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욱이 선택지 ①번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문장은 지문의 [A]에 나타난 서술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약하자면, 선택지 ①번의 문장은, 옵션 구매자가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즉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한 가격, 즉 1만원이라는 지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평가원이 해설에서 선택지의 표현이 지문의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서술해 선지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선지를 판단할 때 선지의 내용과 똑같은 텍스트가 지문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자.



유형 5. 일치 | example 2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위의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1 06 평가원 [44-46]번 지문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44. ②번 선지와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해보고 생각해볼 것도 없이 맞는 선지라고 판단 하면 된다.

지문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지문의 근거)
	=
선지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유형 5. 일치 | example 3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위의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1 06 평가원 [44-46]번 지문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4.⑤번 선지 역시 지문과 내용이 일치하므로 맞는 선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 지문 |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문의 근거)

=

| 선지 |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유형 5. 일치 | example 4

평가원은 맞는 선지를 만들 때,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표현을 살짝 바꾸기도 한다. 지문의 텍스트와 선지의 텍스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같다면 두 개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해도 된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의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근거는 다음의 지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2010 06 평가원 [17-19]번 지문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평가원은 지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쓰기 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짝 그 표현을 바꾸기도 한다.

-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지문) = 언어 지도를 보면(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 문학 작품에 나타난(지문) = 김소월 시에 있는(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지문) =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가원이 만든 맞는 선지)

